

## 싱가포르 결핵관리(2)

### 편집부

#### 1. 초창기 국가결핵사업

싱가포르결핵협회는 1953년 7월 8일 결핵보험제도를 도입, 결핵퇴치를 위해 일하는 직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연간 12달러의 보험료로 정규적인 엑스선촬영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연말에 약 3,000명이 가입되어 결핵퇴치 현장에서부터 사업이 실행되었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결핵퇴치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1955년 엑스선이동검진에 의한 가정방문검진이 시작되었는데 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956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159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전 말레이지역내 결핵학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결핵퇴치로 명성을 얻기도 했다.

결핵치료는 의료기관을 통한 외래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엑스선이동검진등 가정방문을 통해 이뤄졌다. 가정방문은 급성 질환 및 중독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모든 활동성 환자에게는 2제 약제병용요법으로 장기화학치료를 시도했다. 허탈요법, 인공흉막술이 사용되었고 폐절제 등 외과치료는 일반병원에서 담당했다. 10년 후 정부는 싱가포르결핵협회의 결핵발견 및 박멸사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약속했으나 협조하는 지역이 적었다.

1959년 저널리스트인 Mr Wee Kim Wee가 회장이 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집단검진을 비롯한 캠페인에 주력하였다. 정부의 협력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전문가에 의한 결핵집단검진 실태조사 결과 27명중 1명이 결핵으로 판명됐다.

싱가포르의 결핵유병률은 그 당시 미국의 20배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실제 14세 이상 연령에서 집단검진을 받은 16,886명중에 4.9%인 828명이 결핵환자로 판명되었다. 이런 수치는 병원에서 10년동안 결핵환자를 발견·치료해 온 지역이라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결핵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싱가포르결핵협회는 격월간으로 결핵관련 잡지 "결핵은 당신이 어

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안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를 영어, 중국어, 말레이시아어로 출판했다.

당시 정부에서는 신생아에 대한 BCG 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였고 1960년에는 초등학교 학생으로 확대되어 작업장의 사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했다.

경제부흥을 위해 구조조정이 한창인 때에 재정적으로 또는 그외의 형태로 도움을 받아야 할 환자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었다. 협회는 이러한 환자에게 주식 및 부식이 원활히 배급되도록 도왔다. 사회복지부에서는 결핵치료 수당의 명목으로 당시 536,000달러를 지원했다.

항결핵 사업은 계속되었고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었다. 정부와 협회는 집단검진 지역을 나누어 실시했으며 극장, 학교 및 단체 등에 상영되는 결핵예방 및 치료에 관한 영화가 공동으로 제작됐다.

정부의 항결핵사업은 점차 확대되어 750,000달러 흉부진단기계를 결핵을 포함한 폐질환 치료 외과시설에 제공했다.

폐 이외의 질환을 위한 진단 및 치료도 점차 확대되었다. 외래환자에 대한 심장질환 치료와 조사를 위한 심장학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기업체들도 관심을 보였고 신입 직원의 25%가 심장질환을 포함한 보험에 가입했으며 6개월내에 10,466명이 등록했다.

정부와 결핵협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결핵은 계속 감소하여 1950년 사망률은 10만명당 144명이었고 1965년에는 10만명당 37명으로 144% 감소했다.

1967년 협회는 왕실싱가포르결핵의원에서 폐, 심장 및 결핵협회(SATA Chest and Heart Clinic)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진료영역 확대 등 협회의 사업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인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수년간 항결핵퇴치의 본부가 되어 세계회의 공동주최, 지역별그룹회의 및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 동부지역내에서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했다.

전 국민의 사회경제여건의 급격한 부흥은 결핵발병률 주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1971년 Strait Times는 싱가포르의 주요 사인으로 결핵이 8위에 있음을 보도했다.

창립 25주년이 되는 1972년 1,600,000명이 엑스선 검진을 받았으며 이중 46,864명이 활동성 결핵환자로 발견되어 치료받았다. 또한 협회의 집단엑스선검진 캠페인은 참여율의 저조와 낮은 발견율로 인해 사실상 종료되었으나 산업장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분진 등의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엑스선검진을 받도록 했다.

창립후 25년간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결핵협회는 항결핵사업을 위한 기초 기간산업인 건물건축 등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다.

## 2. 결핵관리사업 발전기(1972-1997)

1972년을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심장의 해로 선정했고 보건국에서도 부응하여 심

장질환 진단 및 치료장비 등을 갖추어 나갔다. Tan Seng 병원은 이미 심장질환 센터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다.

결핵협회에서도 72년 예방의학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노년층, 경영관리 및 행정실무자에게 주력하였다. 이러한 그룹에서 관상동맥과 고혈압심장질환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학설이 발표되면서 정기적으로 검사에 임하게 했다.

꾸준한 결핵사업에도 불구하고 16-18세 청소년층의 약 60%가 결핵군에 감염되었으며 74년 결핵신환자 발생률이 증가했다. 50세 연령군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1-50세 연령군이였다. 그리고 21-30세 연령군이 31-40세 연령군에서보다 높았으며 대부분 중등증, 중증이였다.

신환발생률은 75년 10만명 당 138명으로 미국 및 유럽의 경우보다 10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사망률은 10만명당 18.6명(60년 결핵사망률 10만 명당 40명)이였다.

1979년에는 근절하기 어려운 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WHO에서 금연을 사회규범으로 설정하였다. 협회는 보건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담배의 타르 함량저하 및 담배갑에 흡연 경고문 표기 등의 운동을 전개했다. 흡연은 심장질환 및 폐암발생에 주범인 것을 강조했다.

당시 협회의 최대 관심사는 2051년으로 임대계약이 끝나는 건물의 이전이었는데 다행히 1981년 Cantonment가로 옮겨 결핵협회의 모습을 새롭게 했다. (SATA Chest & Heart Clinic(SCHC)).

1982년에는 소위 단기치료법이 도입되었는데 결핵치료기간을 18개월에서 6개월 단축하였으며 1986년에는 제 26차 IUATLD회의를 개최하여 항결핵사업에 박차를 기했다. 1993년 10월에는 현대인의 질병으로 간주되는 에이즈(AIDS)를 진단하기 위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진단지정센터로 선정되었다.

1997년 9월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제19차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 동부지역회의를 개최하였다.

협회 창립 50여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0명의 의료진과 장비 및 기술의 현대화를 가져왔다. 직원의 해외연수 등 의료진의 기술향상에도 주력하였다.

### 3. 할 일 많은 결핵협회

무엇보다 아직 결핵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결핵에 노출되어 있으며 꾸준히 결핵퇴치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 완전한 박멸은 요원한 것이였다.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HIV, 가난, 결핍, 알코올 및 마약남용 등으로 결핵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1986년부터 1992년 사이에 미국 및 덴마크에서 20%정도의 결핵증가율을 보였다.

싱가포르결핵협회는 15년내에 결핵발병률을 10만명당 10명에서 백만명당 1명이 하로 감소하기 위한 결핵퇴치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卍